

# “호재·악재 변수 많아... 신선한 프로그램 개발 절실”

## 교계 지도자 50명 설문 '2002년 포교환경 변화'

올해는 월드컵 개최(5-6월), 주5일 근무제 도입(7월 예정), 대선(12월)과 지방선거(6월), 위성 방송 개국(3월 예정), 경제악화 가능성 등 굴곡진 현안들로 장식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곧 불교 포교 환경이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이들 현안에 쏠릴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들 사안이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엔 불교계 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 본지가 실시한 설문은 바로 이 현안들이 포교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어떤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설문 분석

월드컵 = 월드컵이 포교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이유는 한국불교를 외국에 알릴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월드컵을 '호재'로 꼽은 응답자 45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이같은 이유를 꼽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면서 저절로 내국인 포교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져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이 불교문화와 밀접해 월드컵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홍보해 줄 것이라는 견해도 7명이나 됐다. 그러나 '호재'로 전망한 응답자 대부분은 월드컵과 관련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월드컵을 호재로 삼는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5일 근무제 = 가장 많은 응답자(46명)가 주5일 근무제를 '호재'로 꼽은 이유는 휴일이 늘어날 경우 사활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46명 가운데 34명이 이같은 이유를 꼽았는데, 이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찰이 생활에 지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이 즐겨찾는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경우 불교가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심사찰의 공동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여가 문화의 확대로 신도들의 정기법회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치환경 변화 =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포교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 50명 가운데 24명이 '호재'로 지목한 반면,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견해(17명)와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9명)도 만만치 않았다. '호재'로 판단한 응답자 대부분은 정치권과 불교계 목표 공략으로 불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악재'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지지정당이 갈리면서 불교계가 분열되거나 정치권과 유착될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다. '중립'적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특실이 뒤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항목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스님의 경우 '악재'로 본 응답자(10명)가 '호

재'로 본 응답자(7명)보다 많은 반면, 재가 지도자는 '악재' (7명) 보다는 '호재' (17명)로 판단한 응답자가 많았고, '중립'적 입장을 보인 9명중 8명이 스님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불교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스님이 재가자보다 곱지 않은 시선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스님 가운데 3분의 1이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불교가 선거에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 = 미디어 환경 변화가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호재(25명)와 '악재'(22명)가 평평했다. '호재'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불교 홍보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불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불교문화의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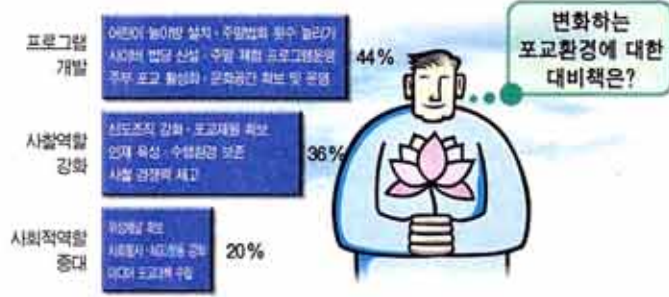
- 월드컵
- 주 5일 근무제
- 정치 환경
- 위성TV 개국

가 비주류 시대에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면 '악재'로 전망한 응답자들은 기독교계의 종교방송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불교의 미디어 환경이 열악해 기독교에 비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상업주의로 인해 종교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도 있었다.

경제여건 =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상정한 포교환경변화 여상 질문에서 '악재' (34명)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호



▶ 불교계 지도자 50인이 전망한 항목별 포교환경 예측.



그래픽·최정근

를 끼칠 것인가를 우선 순위로 나열해 달라는 질문을 종합한 결과는 주5일 근무제-월드컵-미디어 환경변화-경제여건-정치환경 순이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가장 많이 1순위로 꼽혔으며 스님 9명, 재가자 15명, '월드컵' (10명)과 미디어 환경변화' (9명)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월드컵'의 경우 1순위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뒤졌지만 2순위에서는 앞서서 등 '주5일 근무제'에 못지않게 포교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치 환경변화'를 1순위로 지목한 응답자는 2명에 그치는 등 3·4·5순위로 꼽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호재' '악재'에 대한 전망과 관계없이 올해를 어느 해보다도 포교환경이 크게 변화할 해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환경변화에 대처할 '포교 프로그램 개발'

(44%)이다. '포교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사람들을 불교로 끌어들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가족단위 또는 주말 사찰체험 프로그램, 주말법회 횡수 확대, 어린이 놀이방 설치, 사이버법당 개설, 문화공간 확보와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36%)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포교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도조직 및 교육이 강화돼야 하고, 포교자원 확보 및 사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는 것이 포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위성채널 확보, 사회봉사활동의 차원 확대, NGO활동 강화 등이 지목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ista.com

- ###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
-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 효암 (진각종 총무원장)
  - 무비 (조계종 교육위원장)
  - 지하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 도영 (조계종 포교위원장)
  -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 원택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법장 (조계종 교구본사연합회장)
  - 청화 (심원불교전국승가회 의장)
  - 법산 (동국대 정각위원장)
  - 관우 (천국대 부총장)
  -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
  - 성광 (군봉교위원회 위원장)
  - 지오 (해인사 강원 강주)
  - 중원 (제주불교사찰연합회장)
  - 우학 (대구 영남불교대학장)
  - 현웅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 장곡 (공주 김사 주지)
  - 해일 (전남 김천사찰연합회장)
  - 현각 (임주 소핵사찰을 원장)
  - 벽상 (광주사찰연합회장)
  - 해동 (해인사 불암장)
  - 법타 (광복회 회장)
  - 법륜 (JIS 이사장)
  -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
  - 이수덕 (불교TV 사장)
  -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 손재석 (위례대학교 총장)
  -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 김대중 (조계종 포교위원장)
  -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위원장)
  - 박광서 (재가단체 상담대표)
  - 김재일 (동신반야회 회장)
  -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
  - 이근우 (성당정보통신과 교장)
  -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 윤창화 (인척사 대표)
  - 정인악 (대한불교신학인연합회 총재)
  - 송도근 (건설교총부 불지회장)
  - 김동훈 (경남불교 운영위원장)
  - 김정도 (부산불교가사법회장)
  - 연기영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 이기환 (한성대학교 교수)
  - 윤천수 (불교미래대 이사장)
  - 원철희 (태고종 영안도회장)
  - 김유혁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 백진호 (진각종 총무원장)
  - 임완숙 (천국사찰연합회장)
  - 이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 (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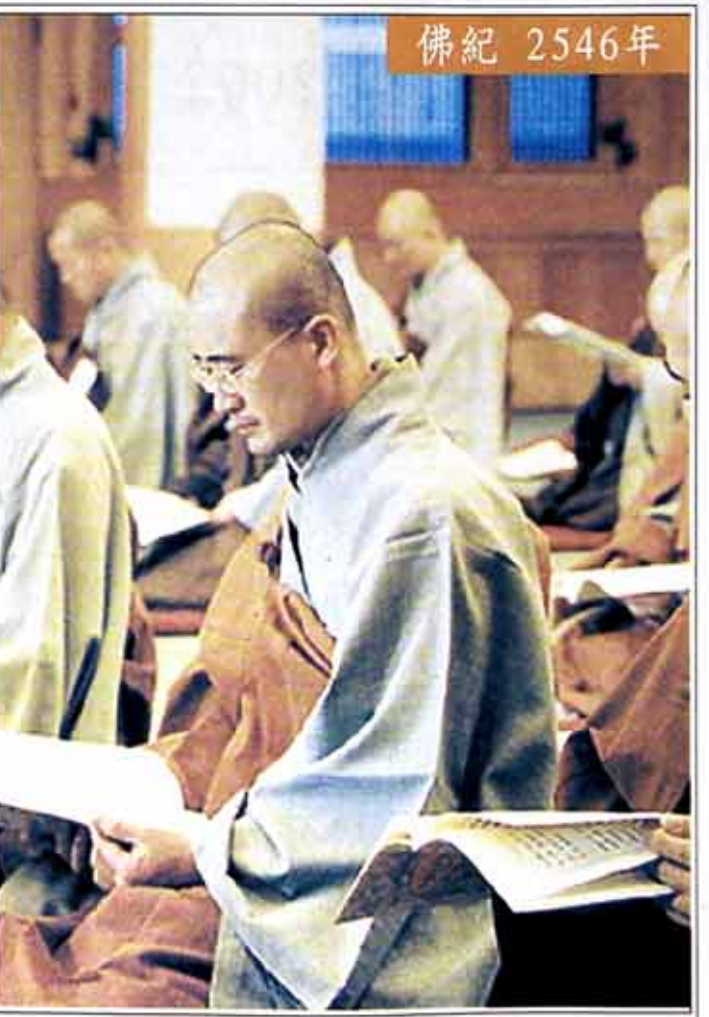
謹賀新年

조계종단은 새 해에도 화합과 안정 속에 수행가풍을 진작하여 수행 전통을 진작시키고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이룩한 고귀한 정신문화와 자원은 온 국민과 인류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大韓佛教曹溪宗

총원회의 의장 법전  
총무원장 정대  
호계원장 월서  
중앙총회 의장 지하



佛紀 2546年